

주간 통일정세

2018-07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	-
남북 교류협력	2.10	남북공동응원단 발대식...체육관서 단일팀 응원전(연합뉴스)
		北김여정 “서울은 처음...낯설지가 않아”...강릉서 만찬(연합뉴스) 文대통령, 北대표단과 단일팀 응원...함께 손뼉치고 탄식하고(연합뉴스)
	2.11	평창올림픽 ‘훈풍’에...서울시 남북교류기금 9년만에 최대 집행(연합뉴스)
		대통령·총리 이어 임종석 환송 만찬...北대표단 ‘진심 예우’(연합뉴스) 北예술단, 15년여만에 서울공연...“서구적·현대적 변화 봤다”(연합뉴스)
	2.12	박원순 “北에 전국체전 참가와 경평축구 부활 제안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셨나”...김여정 “특명받고 왔다”(연합뉴스)
		현송월 등 北예술단 137명 북으로...경의선 육로 통해 귀환(연합뉴스) “우리는 하나다”...서울서 다시 뭉친 남북 태권도(연합뉴스) 단일팀 졌지만...北응원단 ‘파도타기’로 관중석 하나 뒀다(연합뉴스)
	2.13	경포대에 소풍 온 北응원단...취재진에 막혀 바다도 못 봐(연합뉴스)
		오죽헌에 울려 퍼진 ‘아리랑’...北응원단 취주악 공연(연합뉴스)
	2.14	北응원단, 오늘 남북 단일팀 한일전에 뜬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 특이사항 없음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2. 10.

■ 남북공동응원단 발대식...체육관서 단일팀 응원전(연합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은 10일 오후 강릉 황영조체육관에서 발대식을 하고 응원전에 돌입함.
- 6·15 남북본부가 개최한 민족화해 한마당 잔치를 겸해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재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등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함.
-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남북공동응원단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이 되도록 모든 시민과 더불어 남측을 방문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경기장 안과 밖에서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들, 그리고 각계 관중들이 하나 되는 뜨거운 공동응원, 통일응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힘.

■ 北김여정 “서울은 처음...낯설지가 않아”...강릉서 만찬(연합뉴스)

- 김 제1부부장은 10일 저녁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로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최문순 강원지사가 서울 방문이 처음이냐고 묻자 “처음입니다”라고 답했는데, 최 지사는 이어 서울이 어떠냐고 대화를 이어갔고 김 제1부부장은 “낯설지가 않다”고 말함.
- 동석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대회가 성황리에 훌륭히 진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북

남, 해외 온 겨레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 강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이 꼭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그런 신심을 받아 안고 앞으로 평양으로 가게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임.

- 이날 만찬에는 김 제1부부장과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취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조 장관과 천 차관, 최 지사 말고도 이희범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만찬에 참석함.

■ **文대통령, 北대표단과 단일팀 응원…함께 손뼉치고 탄식하고(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저녁 강릉 관동하키센터를 찾아 남쪽을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스위스전을 응원함.
- 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경기가 0-8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경기가 끝나자 기립해 손뼉을 치며 한반도기를 가슴에 달고 뿔 단일팀 선수들을 격려함.
- 한편 이날 경기 관람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의 최취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함.

2018. 2. 11.

■ **평창올림픽 ‘훈풍’에…서울시 남북교류기금 9년만에 최대 집행(연합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교류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면서 한때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까지 있었던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짐.
-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총 11억 5천 600만원을 지원함.
- 서울시는 우선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국립극장 공연에 6억원을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비용 5천 600만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했고,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다음 달 18일까지 평창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전시장에서 열리는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에도 5억원을 지원함.

■ **대통령·총리 이어 임종석 환송 만찬…北대표단 ‘진심 예우’(연합뉴스)**

- 임 실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1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대표단과 비공식 환송 만찬을 함.
- 북한 대표단이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극장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곧바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녁 시간이 마땅치 않아 공연 관람에 앞서 만찬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임.
- 다소 이른 저녁이었지만 1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은 시종 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배석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함.

■ **北예술단, 15년여만에 서울공연…“서구적·현대적 변화 봤다”(연합뉴스)**

-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5년 6개월 만인 북한 예술단의 이번 서울공연은 문화적 이질감 우려와 체제 선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끊어졌던 남북 문화교류의 다리를 다시 연결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님.
- 이날 열린 서울공연에서도 북한 예술단은 강릉 공연과 거의 유사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는데, 강릉에서와 같이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로 문을 연 서울공연에서도 한국 가요 ‘J에게’·‘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당신은 모르실 거야’·‘다함께 차차차’, 북한 가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서양 관현악곡 메들리 등이 펼쳐짐.
- 특히 서울공연의 마지막 무대에서 소녀시대 멤버 서현이 깜짝 출연하며 객석의 환호를 받았는데, 서현과 북한 여성 중창단은 손을 잡은 채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핫팬츠 차림의 5명의 가수가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나라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음.

2018. 2. 12.

■ **박원순 “北에 전국체전 참가와 경평축구 부활 제안했다”(연합뉴스)**

- 지난 1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공연을 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옆에 마침 최휘 북한 국가체육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앉아있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경평축구의 부활, 전국체전 참가 등의 교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힘.

- 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의 시간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의 교류가 반복되고 확장돼 신뢰를 쌓고 협력을 쌓아나간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서울시정의 최우선 원칙이 서울시민의 안전이고, 한반도의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에 서울시와 저는 발을 맞춰갈 것”이라고 밝힘.

■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셨나”…김여정 “특명받고 왔다”(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에서 10일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만났을 때 김 제1부부장이 ‘내가 특사입니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특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문 대통령이었음.
-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 제1부부장에게 “특사 자격으로 오신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하며, 이에 김 제1부부장이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임.

■ 현송월 등 北예술단 137명 북으로…경의선 육로 통해 귀환(연합뉴스)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137명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지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함.
- 예술단 단원들은 CIQ에서 남측에 머물렀던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대답은 거의 하지 않음.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역시 ‘공연이 마음에 들었느냐’, ‘목감기는 나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는 않았으며, 현 단장과 북측 관계자 5명은 CIQ 내 귀빈실에서 남측 관계자들과 30분 정도 대화함.

■ “우리는 하나다”…서울서 다시 뭉친 남북 태권도(연합뉴스)

-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청 8층 다목적홀에서 합동 시범공연을 펼침.
- 이날 공연도 각자 특색을 살려 북한은 손기술과 호신술 위주의 시범공연을 선보였고, 우리나라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송판을 깨뜨리는 화려한 발동작과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공연을 펼침.
- 서울시와 통일부,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날 시범공연에 개성공단 관련 기업, 서울시 환경미화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태권도 꿈나무 등 250여명을 초청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조정원 WT 총재, 리용선 ITF 총재 등도 공연을 지켜봤음.

■ 단일팀 족지만…北응원단 ‘파도타기’로 관중석 하나 돼(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 대표팀의 조별리그 1피리어드가 끝난 12일 저녁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단일팀이 0 대 4로 뒤지는 상황에 북한 응원단 앞에 있던 리더가 옆으로 달리며 ‘파도타기’를 시작했고, 응원단은 이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파도를 일으킴.
- 북한 응원단의 평창올림픽 경기 응원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북한 응원단은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에서 남성 얼굴이 그려진 ‘미남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응원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가면 응원을 하지 않음.
- 북한 응원단은 이날 오전에는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에 나와 첫 야외 응원을 할 예정이었지만, 강풍 등 기상 악화로 경기가 연기돼 응원하지 못하게 됨.

2018. 2. 13.

■ 경포대에 소풍 온 北응원단…취재진에 막혀 바다도 못 봐(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은 13일 오전 숙소인 인제 스피디움을 나서 여러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낮 12시 20분께 경포 해변 중앙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 응원단은 경기장에서 입는 모자 달린 빨간색 체육복 차림이었음.
- 북한 응원단이 중앙광장을 지나 줄을 지어 백사장으로 걸어가자 취재진이 모여들어 경쟁적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며 질문을 던졌고, 이 때문에 북한 응원단은 바다 경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함.
- 경포대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도 북한 응원단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평창올림픽 경기를 보러 강릉을 방문 중인 외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찍기도 함.

■ 오죽헌에 올려 퍼진 '아리랑'...北응원단 취주악 공연(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 약 80명으로 구성된 취주악단은 이날 오죽헌에서 '깜짝 공연'을 했는데, 취주악단은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 드럼 등의 악기를 들고 선 채 공연했으며, 이들은 리더의 지휘에 맞춰 앞뒤로 스텝을 밟거나 좌우로 몸을 흔들며 악기를 연주함.
- '반갑습니다'로 시작한 취주악단의 공연은 아리랑을 비롯해 '토장의 노래', '옹헤야', '꽤지나칭칭나네', '달려가자 미래로', '청춘송가' '통일무지개', '다시 만나요' 등을 연주함.
- 북한 응원단은 취주악단 공연에 앞서 오죽헌을 견학했는데, 자경문으로 들어간 응원단은 오죽헌, 율곡기념관, 입지문, 향토민속관 등을 둘러봄.

2018. 2. 14.

■ 北응원단, 오늘 남북 단일팀 한일전에 뜬다(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이 14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마지막 경기를 응원함.
- 응원단은 이날 오후 여자아이스하키 조별리그 남북 단일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강릉 관동하키센터 관중석에서 단일팀을 응원할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응원단은 이날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피겨 스케이팅 페어 쇼트프로그래밍 경기와 평창 용평 알파인스키장에서 열리는 여자 회전에도 참가해 응원할 것으로 전해짐.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210	김여정 밀착수행 김성해...北서 보기도문 여성 대남통(연합뉴스)
		北매체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 못할 근거 없어"(연합뉴스)
		北아태평화위 "자위의 핵억제력 질량적으로 강화할것"(연합뉴스)
	211	'김정은 첫 비서실장 김창선, 北대표단 지원인력으로 방남(연합뉴스)
	212	北 박봉주 총리, 원산갈마관광지구 현지 시찰(연합뉴스)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연합뉴스)
北 "고위급대표단 南방문, 관계개선 의의있는 계기 돼"(연합뉴스)		
213	北김정은 "북남, 화해·대화분위기 승화 중요"...대표단 보고받아(연합뉴스) 김정은, 귀환 삼지연관현악단 만나..."커디란 만족"(연합뉴스)	
214	김정은, 김정일 생일 앞두고 북한군 장성 승진인사(연합뉴스)	
군사	-	-
경제	212	"美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연합뉴스)
	214	"제재로 北 무역회사들 영업중단...사무실 임대하기도"(연합뉴스)
사회 문화	-	-
외교 국방	210	백악관 "펜스, 고의로 北 피한건 아냐...북미 무관심은 상호적"(연합뉴스)
		北신문, 펜스 美부통령 방한 행보 비난..."신성한 올림픽 악용"(연합뉴스)
	212	北신문 "美가 적대시정책 철회하면 우리 핵 美겨냥도 없을것"(연합뉴스)
		북한 만경봉호, 러 블라디항서 출항 조치..."운송 화물 하역못해"(연합뉴스)
	213	北신문 "美 선제타격은 자멸...군사적모험 매달리지 말아야"(연합뉴스)
		미, 내년 예산서 북한 겨냥한 군사·경제 '최대압박' 천명(연합뉴스)
		日관방, '北, 문대통령 방북초청'에 "미소외교일뿐" 견제(연합뉴스)
214	"스위스, 2012년 발사 北 장거리로켓에 자국부품 사용돼 조사"(연합뉴스)	
214	"말레이, 북한 건군절 열병식 참관 거절...관계회복 요원"(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2. 13.

■ 北김정은 “북남, 화해·대화분위기 승화 중요”…대표단 보고받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남측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으로부터 12일 방남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과 관련한 강령적인 지시를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보고에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단장을 맡았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 김정은, 귀환 삼지연관현악단 만나…“커다란 만족”(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훌륭하고 감동적인 공연활동으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과 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우리 북녘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 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준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었다”고 전함.
-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로부터 공연장 분위기와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 위원장은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8. 2. 14.

■ **김정은, 김정일 생일 앞두고 북한군 장성 승진인사(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3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 명령하시었다”고 밝힘.
- 이번 북한군 인사에서는 안명건이 육군 중장(별 2개)으로 승진했으며, 해군의 김영선, 전략군의 김명복·전혁주·손종록·리정목, 육군의 김동길·김철웅 등 22명이 소장(별 1개) 계급장을 달았음.
- 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성 승진인사를 명령하면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노동당기를 제일 군기로 높이 휘날리며 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2. 10.

■ **김여정 밀착수행 김성혜…北서 보기드문 여성 대남통(연합뉴스)**

- 북한의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밀착수행함.
-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대남통’임.
- 김성혜는 9일 김 제1부부장이 전용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일정까지 지근거리에서 수행함.

2018. 2. 11.

■ **‘김정은 첫 비서실장’ 김창선, 北대표단 지원인력으로 방남(연합뉴스)**

-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지원인력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일종의 첫 ‘비서실장’ 역할을 한 김창선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
- 김창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 측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보장성원’(지원인력)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그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상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강릉 스카이 베이 경포호텔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 우리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장 사이에 자리했으며, 11일 오후 열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 장 등 우리측 인사들과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환송 만찬에도 참석함.
- 김창선이 이번 방남 인원에 포함된 사실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비서실장 격인 국방위원회 서기실장을 맡았던 배경 때문임.

2018. 2. 12.

■ **北 박봉주 총리, 원산갈마관광지구 현지 시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준비 상황을 현지 시찰했다고 밝히면서 “박봉주 동지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동해의 명승지에 일떠서는 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고 전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고, 공사를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다그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을 앞두고 12일 박광호·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노광철 제2경제(군수경제) 위원장,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13일 보도함.
- 결의대회 연설자들은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천겹만겹의 성새, 방탄벽이 되어 결사옹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여 김정일 동지의 애국위업,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결의하였다”고 통신은 소개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2. 10.

■ **北매체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 못할 근거 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이 이용할 통일기(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못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이번에 우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이용할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할 데 대한 원칙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어 “독도는 법적 근거로 보나 역사적 근거로 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로서 그 영유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고 또 따지고들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함.

■ **北아태평화위 “자위의 핵억제력 질량적으로 강화할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 대응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아태평화위는 10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번에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핵무기 현대화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사실상 합법화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또 “우리는 미국의 끈질기고 악랄한 핵 위협 공갈과 핵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자위의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8. 2. 12.

■ **北 “고위급대표단 南방문, 관계개선 의의있는 계기 돼”(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제23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였던 김영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라며 “고위급대표단을 태운 정부비행대 전용기 ‘참매-2’호기는 21시 55분(서울시간 오후 10시 25분)경 인천 국제비행장을 이륙하여 22시 40분(서울시간 오후 11시 10분)경 평양 국제비행장에 착륙했다”고 보도함.
- 이들 매체는 “내외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고위급대표단의 이번 남조선 방문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다”고 의미를 부여함.

- 신문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 구성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2. 14.

■ “제재로 北 무역회사들 영업중단…사무실 임대하기도”(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14일 북한 내부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무역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함경북도 내 무역회사 중에는 대(對)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함.
- 일례로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강성무역회사는 수남구역의 큰 건물을 시장 상인들에게 창고와 도매 공간으로 빌려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으며, 회령 시에서도 강성무역회사나 동양회사 등의 출장소가 사무실을 임대창고로 내줬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이달에 북한 현지 ‘취재협조자’에게 조사를 부탁했다면서 “지방 도시의 무역회사 출장소나

- 지사들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함경북도 청진과 회령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지사들이 거의 문을 닫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고 RFA에 설명함.
- 아울러 양강도의 동·아연 광산은 중국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서 거의 채굴이 정지됐으며, 노동자들에게 식량 배급만 내줄 뿐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RFA는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전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2. 12.

■ “美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VOA와 FinCEN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으로부터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그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불법적 활동들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서의 중대한 결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FATF가 우려하고 있다고도 명시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2. 10.

■ 백악관 “펜스, 고의로 北 피한건 아냐…북미 무관심은 상호적”(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평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부통령 전용기 안에서 미 취재단에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에서 고의로 북한 대표단을 피한 건 아니다”라면서 “단지 다른 참석자에게 인사하는 지근거리에 북한 인사가 앞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각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개최한 리셉션에 늦게 도착한 데다, 5분 만에 자리를 뒀으며,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면하거나 악수를 나누는 일도 없었음.
-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 간 무관심은 상호적인(mutual) 것으로,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려던 한국 측의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함.

■ 北신문, 펜스 美부통령 방한 행보 비난…“신성한 올림픽 악용”(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미국대표단장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행보를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신성한 올림픽까지 대결모략에 악용하는 비열한 추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부대통령 펜스가 올림픽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반공화국 대결모략 광기를 부러대어 내외의 비난과 규탄 세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청와대 만찬 회동 발언, 탈북민 면담, 천안함기념관 방문 등의 방한 행보를 거론하면서 “존엄 높은 우리 정권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설로 꺼리낌 없이 모독하는 광대극까지 벌여놓았다”고 비난함.

2018. 2. 12.

■ 北신문 “美가 적대시정책 철회하면 우리 핵 美겨냥도 없을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

- 하고 핵 위협을 걷어치우면 우리의 핵 보검이 미국을 겨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근 싱가포르 다자안보회의 발언을 비난하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는 바로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미국 본토를 잿가루로 만들 수 있는 자위의 전쟁 억제력을 보유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핵은 철두철미 동족이 아닌 미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짓부수는 데 복종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8. 2. 13.

■ 北신문 “美 선제타격은 자멸…군사적모험 매달리지 말아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3일 ‘악의 제국은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트럼프 것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소동은 제 손으로 멸망의 함정을 파는 자살행위”라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침략 야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현실을 오판하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 타격이 개시되면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군 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은 승리의 월계관이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자멸의 길”이라며 “미국이 비참한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무모한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미, 내년 예산서 북한 겨냥한 군사경제 ‘최대압박’ 천명(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청 예산으로 전년도 78억 달러(약 8조4천억 원)에서 26% 늘어난 99억 달러(약 10조7천억 원)를 요구하고, 이 돈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와 이지스 요격체계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임.
- 아울러 핵무기 유지·보수를 위해 국방부 예산과 별도로 300억 달러(약 32조5천

억 원)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함.

- 백악관은 재무부 예산안 핵심요약에서 덜 중요한 임무에 배정된 예산을 “북한과 그 밖의 국가안보 위협들에 최대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금융 집행수단에 대한 투자”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우선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예산으로 2017년보다 3천600만 달러(약 390억 원) 늘어난 1억5천900만 달러(약 1천723억 원)를 책정하고 “이러한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8. 2. 13.

■ 日관방, ‘北, 문대통령 방북초청’에 “미소외교일뿐” 견제(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문 대통령 초청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긍정) 평가”하지만 “북한의 ‘미소외교’에 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제함.
- 스가 장관은 이어 “북한은 지난 8일 가진 대규모 열병식에서 작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4종류의 탄도미사일이 확인됐다”며 “이것이 북한의 실체”라고 지적함.
- 그는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북한이 정책을 변경시키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함.

라. 북·러 관계

2018. 2. 12.

■ 북한 만경봉호, 러 블라디항서 출항 조치…“운송 화물 하역못해”(연합뉴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 공보실은 9일(현지시간) 만경봉호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출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며, 선박이 항구를 벗어나고 있다고 전함.

-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앞서 8일 “세관에 제출된 (운송) 상품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문서가 가짜로 드러났다”며 “원본 증명서에는 가짜 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상품 코드가 적혀 있으며 이 코드는 해당 상품이 제재 품목임을 보여준다”고 선박에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세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만경봉호가 운송한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2. 13.

■ “스위스, 2012년 발사 北 장거리로켓에 자국부품 사용돼 조사”(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탁스블리크’등 스위스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에 스위스제 부품이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함.
- 스위스 언론은 당시 한국 해군이 수거한 장거리로켓 잔해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 스위스 등에서 제조된 부품이 발견됐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RFA는 “스위스 연방 경제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개발에 한 스위스 업체가 만든 직류 변압기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스위스제 전자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부품이 대량 생산된 데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돼 구입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2018. 2. 14.

■ “말레이, 북한 건군절 열병식 참관 거절…관계회복 요원”(연합뉴스)

- 로이터 통신과 말레이시아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외교가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자국 사절을 파견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고 보도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더해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4명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말레이시아는 197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전통적 우방이었지만, 북한이

작년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자국내 말레 이시아인을 전원 억류해 인질로 삼은 이후 관계가 크게 악화됨.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2.10		펜스 “문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강력 지지…사상 최대폭 제재” (연합뉴스)
	02.11		백악관, 문 대통령 평양 초청에 “한국 측과 긴밀한 연락중” (연합뉴스)
	02.12		매디스 “올림픽 남북교섭이 한반도평화 이끌거라 말하긴 일러”(연합뉴스)
	02.13	정부, 美대북추가제재 질문에 “미측이 발표할것…긴밀공조” (연합뉴스)	
	02.14	트럼프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 협정…손실만 낳았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2.12		중외교부 “문대통령 방북 초청, 지역평화에 도움…지지·환영” (연합뉴스)
			중외교부 “한정 상무위원, 한국 서 北 고위급 대표단장 만나” (연합뉴스)
	02.13	외교부 “中 류옌둥 부총리,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연합뉴스)	중외교부 “남북접촉, 적시에 북미접촉으로 전환돼야” 강조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2.10		“아베 총리, 문 대통령에 서울·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연합뉴스)
	02.11		文대통령 방북 경계하는 日…방위상 “대화위한 대화 의미 없

			다”(연합뉴스)
	02.13	외교부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 위해선 관련국 노력 중요” (연합뉴스)	아베 “지도자, 비판감수해야”… 文대통령에 위안부합의 이행요구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2.11		“북핵문제 협력 강화하자”...양 제츠, 트럼프에 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2.13	트럼프-푸틴 통화...“北비핵화 위한 추가조치 중요”(연합뉴스)	
		‘러시아에 맞선 대서양 동맹’에 밀줄 그은 ‘트럼프 사단’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2. 10.

■ 펜스 “문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강력 지지…사상 최대폭 제재”(연합뉴스)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게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계속할 극도의 압박 캠페인을 강력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말함.
- AP 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젯밤 문 대통령도 제재가 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이뤄지는 남북 대화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함.
-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국제 리더십이 새로운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었음을 칭찬했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함.

2018. 02. 11.

■ 백악관, 문 대통령 평양 초청에 “한국 측과 긴밀한 연락중”(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한 데 대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북한 초청에 대한 공식입장이 무엇인냐고 한 서면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관해 한국 측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답함.

2018. 02. 12.

■ 매티스 “올림픽 남북교섭이 한반도평화 이끌거라 말하긴 일러”(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한

- 간 교섭이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보임.
-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긴장완화를 위해 어느 정도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 종료 후 어떤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당장 이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목하며 “그가 최근 탄도미사일이 부각된 열병식을 개최한 점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어떠한 메시지들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함.

2018. 02. 13.

■ 정부, 美대북추가제재 질문에 “미측이 발표할것…긴밀공조”(연합뉴스)

- 외교부는 미국이 곧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측이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추가 대북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거나 미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 미측이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함.
- 노 대변인은 ‘미측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미간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후속 질문에 “북핵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힘.

2018. 02. 14.

■ 트럼프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손실만 낳았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말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입 세탁기 등에 대한 셰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 조치에 서명하면서 한미FTA를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하는 등 한미FTA를 여러 번 ‘재앙’으로 표현했음.

나. 한·중 관계

2018. 02. 12.

■ 中외교부 “문대통령 방북 초청, 지역평화에 도움…지지·환영”(연합뉴스)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한 데 대해 중국이 지역 평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경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이 평창올림픽에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면서 “한민족인 남북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지의 뜻을 전함.
- 그는 이어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정세에 얻기 어려운 완화 추세가 나타났다”며 “각국은 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中외교부 “한정 상무위원, 한국서 北 고위급 대표단장 만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 기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힘.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정 상무위원이 한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한 정 상무위원은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했고 북한 대표단 단장과 만나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함.
- 그러나 경 대변인은 양측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음.

2018. 02. 13.

■ 외교부 “中 류엔둥 부총리,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연합뉴스)

- 외교부는 류연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24~26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고 13일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류 부총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며 “류 특별대표는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고 중국 측 대표단을 격려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 노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이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모두 국가 주석 특별대표를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중국 측의 한중관계 중시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지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임.

■ **중외교부 “남북접촉, 적시에 북미접촉으로 전환돼야” 강조(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기회 삼아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미국을 겨냥해선 대화 없이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경 대변인은 먼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나타난 적극적인 발전 추세를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남북 양측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얻은 교류 추세를 다음으로 이어가길 바라며 이를 기점으로 양측이 대화의 대문을 열길 바란다”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2018. 02. 10.

■ **“아베 총리, 문 대통령에 서울·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외교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 대사관 앞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요청함.

2018. 02. 11.

■ **文대통령 방북 경계하는 日…방위상 “대화위한 대화 의미 없다”(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 요청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
-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저녁 사가(佐賀)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기본 정책이 변하는 것이 (대화의) 대전제”라며 이렇게 말함.
- 오노데라 방위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융화(融和)적인 정책을 취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반성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2018. 02. 13.

■ **아베 “지도자, 비판감수해야”…文대통령에 위안부합의 이행요구(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힘.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해 개회식 직전에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자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소개함.

■ **외교부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 위해선 관련국 노력 중요”(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관련 국가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한데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함.
- 노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으로 화해·치유 재단의 거취 문제 등 상세 내용들은 이미 밝혔듯이 피해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2. 11.

- **“북핵문제 협력 강화하자”…양제츠, 트럼프에 촉구(연합뉴스)**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위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제츠 국무위원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서 “중미 관계의 추세는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중미 관계의 발전은 양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힘.
- 양 국무위원은 “양국은 지난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 및 각 급별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8. 02. 13.

- **트럼프-푸틴 통화…“北비핵화 위한 추가조치 중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백악관이 밝힘.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덧붙임.

■ **‘러시아에 맞선 대서양 동맹’에 밀줄 그은 ‘트럼프 사단’(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러시아에 맞서는 이른바 ‘대서양 동맹’ 스탠스로 한층 분명하게 돌아옴.
-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유럽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노력”을 전제한 채 국방부의 유럽억지이니셔티브(EDI, 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63억 달러(6조8천204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밝힘.
- 미 의회 전문매체 힐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EDI 예산 요구 액수를 65억 달러로 특정하고 2018년도 회계연도의 48억 달러와 비교할 때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함.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10	펜스 美부통령 “北 잔인한 독재, ‘감옥 국가와 마찬가지로’(연합뉴스) 국제단체, 북에 소년병금지 국제조약 서명촉구(자유아시아방송)
	2.12	웹비어 부친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는 정치적 성명”(미국의소리)
		탈북자 지현아 “펜스 부통령, 북한은 폭정국가 지칭”(미국의소리)
	2.13	중동지역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 수백 명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2.13	北, 트럼프 ‘인권 공세’에 “우리 핵무력 두려워하기 때문”(연합뉴스)
	2.14	국제기독연대 “북한 정권 변함 없지만 주민들은 변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2.12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시기 결정 안돼…적절시점 추진”(연합뉴스)
	2.13	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2.13	우원식 “이산가족 상봉·남북 군사회담 개최 시급”(연합뉴스)
대북지원	2.12	완도군, 북한 동포에게 김·미역 보낸다(연합뉴스)
	2.13	국제적십자 “북한 신종독감 확산 막기 위해 32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2. 10.

■ 펜스 美부통령 “北 잔인한 독재, ‘감옥 국가’와 마찬가지로”(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9일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자국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고 칭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함.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국정연설 때 거론돼 화제가 된 지성호 씨 등 탈북자 4명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 펜스 부통령은 35분 가까이 이뤄진 면담에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증언하듯, 그것(북한)은 자국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며 “전 세계가 당신들이 목도한 진실을 듣게 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말함.
-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의 잔인한 독재는 ‘감옥 국가(prison state)’와 마찬가지로”라며 “여러분들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함.

2018. 2. 12.

■ 국제단체, 북에 소년병금지 국제조약 서명촉구(자유아시아방송)

- 2월 12일 ‘세계 소년병 반대의 날’을 맞아 소년병을 반대하는 국제단체들은 북한에 대해 군대 징집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올리는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지킬 것을 권고함.
- 유엔이 정한 ‘세계 소년병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the Use of Child Soldiers)’을 맞아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들은 무력 갈등에 소년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소년병반대국제연합의 차루 라타 호그 아시아 담당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이 아직 소년병 징집을 금지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조례(Optional Protocol)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조례서명과 관련 국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동권리국제네트워크도 북한의 군대 징집 연령이 불명확하다면서 유엔의 권고 연령인 18세로 높이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 **웬비어 부친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는 정치적 성명”(미국의소리)**

-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귀국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웬비어 씨는 자신의 가족이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웬비어 씨는 1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정권이 아들에게 한 처우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그 같은 일을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행했다고 말함.
- 한국에 도착한 뒤 여러 탈북자들을 만난 웬비어 씨는 아들의 시련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유대감을 느낀다며,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 **탈북자 지현아 “펜스 부통령, 북한은 폭정국가 지칭”(미국의소리)**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올림픽 계기로 방한해 탈북민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을 폭정국가로 규정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탈북민 지현아 씨가 말함.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지씨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들의 자유를 누리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힘.
- 지씨는 또한,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을, 김정은을 폭정이라고 규정했다고 덧붙이면서 억압받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함.

2018. 2. 13.

■ **중동지역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 수백 명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 중동지역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노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현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이 두 나라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각각 500에서 많게는 700명 밖에 안 된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쿠웨이트의 경우 북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을 때는 4천500명을 넘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지난 9월 말 현재 1천 80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당시 소식통은 설명함.

- 소식통은 중동지역의 북한 해외노동자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부족한 외화를 채우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노동인력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2. 13.

■ 北 트럼프 ‘인권 공세’에 “우리 핵무력 두려워하기 때문”(연합뉴스)

-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권 공세’를 가리켜 “미국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강력 조치에 대해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첫 국정연설에 탈북자를 초대하고 지난 2일 탈북자들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에 북한 역류 후 숨진 미국 대학생의 부친 프레드 워비어를 데려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됐던 탈북자 지성호 씨를 가리켜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함.
- 아울러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 “인권 공세를 계속하려는 발악적인 시도”라고 비판함. 이어 북한에서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반격함.

2018. 2. 14.

■ 국제기독연대 “북한 정권 변할 없지만 주민들은 변해”(미국의소리)

-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인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옴. 앞으로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함.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변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고, 비공식적인 시장의 증가로 국가에 대한 의존이 줄었다는 것임. 로저스 팀장은 또한 북한에서 부패와 뇌물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뇌물은 강제 노동 같은 인권 유린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으로 들여보내는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함.

- 국경 지역을 통해 밀수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외국 라디오 방송, 북한으로 유입된 한국 영화 등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로저스 팀장은 북한 주민들이 이처럼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는 중대한 개인적 위험이 따른다며, 하지만 그 결과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2. 12.

■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시기 결정 안돼…적절시점 추진”(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공여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날 한 매체의 ‘대북지원 800만 달러 이달 내 집행’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이렇게 밝힘.
- 통일부는 “공여 문제와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함.
- 정부는 당시 공여시기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지나도록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8. 2. 13.

■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연합뉴스)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됨.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임.
-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8. 2. 13.

■ 우원식 “이산가족 상봉·남북 군사회담 개최 시급”(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가 시급하다고 말함.
-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언 가슴이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개최”라고 지적함.
- 그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은 대대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알리는 상징”이라며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낮은 단계에서부터 북한이 화해와 교류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그 출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라고 밝힘.

5. 대북지원

2018. 2. 12.

■ 완도군, 북한 동포에게 김·미역 보낸다(연합뉴스)

- 생각됐던 남북 관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전남 완도군이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지원에 나섬.

- 완도군은 지난 8일 북한 동포 사랑의 완도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함.
- 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45개 단체 민간주도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
- 사랑의 완도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는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과 물품 협찬을 통해 북한에 해조류를 보낼 예정임.

2018. 2. 13.

■ 국제적십자 “북한 신종독감 확산 막기 위해 32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힘. 약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 국제적십자사(IFRC)는 12일, 북한에서 A형(H1N1) 신종독감과 싸우는 북한적십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 국제적십자사의 그웬돌린 팡 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북한에서 공공보건 안전조치가 필요한 약 37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3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2만 4천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팡 소장은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23일 사이에 17만8천명 이상이 독감증세를 보였고 4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함.